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요한복음 27 주차 (12:12~36)

(2015년 7월 26일 - 2015년 8월 1일)

(제3권 27호)



Missions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B2B** 제 3 권-제 27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5 년 7 월 26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한글

헬라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5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가? (주일)

오늘의 본문 (요 12:12~19)

12.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13.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14.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15. 이는 기록된바 시온 딸아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16.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줄 생각났더라
17.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18.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19.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 데 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하니라

원문해석하기

- (12절) 이튿날 (Τῆς ἐπαύριον)
축제에 온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 오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ὁ ὄχλος πολὺς ὁ ἐλθὼν εἰς τὴν ἑορτήν, ἀκούσαντες ὅτι ἔρχεται ὁ Ἰησοῦς εἰς Ἱεροσόλυμα)
-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ἔλαβον τὰ βράβια τῶν φοινίκων)
그를 맞기 위해 나가 외쳤습니다 (καὶ ἐξῆλθον εἰς ὑπάντησιν αὐτῷ καὶ ἐκραύγαζον·)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여!
(ὡσαννά· εὐλογημένος ὁ ἐρχόμενος ἐν ὀνόματι κυρίου, [καὶ] ὁ βασιλεὺς τοῦ Ἰσραὴλ.)
- (14절)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보시고는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εὐρών δὲ ὁ Ἰησοῦς ὄναριον ἐκάθισεν ἐπ' αὐτ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καθὼς ἐστὶν γεγραμμένον·)
- (15절) 두려워 말라 시온의 딸아 (μὴ φοβοῦ, θυγάτηρ Σιών·)
보라 너의 왕이 오신다 (ἰδοὺ ὁ βασιλεὺς σου ἔρχεται,)
어린 나귀 위에 앉으셔서 (καθήμενος ἐπὶ πῶλον ὄνου.)
- (16절) 처음에 그의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ταῦτα οὐκ ἔγνωσαν αὐτοῦ οἱ μαθηταὶ τὸ πρῶτον,)
그러나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신 후에 (ἀλλ' ὅτε ἐδοξάσθη Ἰησοῦς τότε)
그들이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ἐμνήσθησαν)
이러한 것들이 그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며 (ὅτι ταῦτα ἦν ἐπ' αὐτῷ γεγραμμένα)
그들이 그에게 그렇게 한 것들을 (καὶ ταῦτα ἐποίησαν αὐτῷ.)
- (17절) 그러자 많은 군중들이 증거했습니다 (ἐμαρτύρει οὖν ὁ ὄχλος)
그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실 때 함께 있던 사람들입니다 (ὁ ὢν μετ' αὐτοῦ ὅτε τὸν Λάζαρον ἐφώνησεν ἐκ τοῦ μνημείου καὶ ἤγειρεν αὐτὸν ἐκ νεκρῶν.)

- (18절) 군중들이 그를 마중나온 것은 그들이 그이적을 행하신 그것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διὰ τοῦτο [καὶ] ὑπήντησεν αὐτῷ ὁ ὄχλος, ὅτι ἤκουσαν τοῦτο αὐτὸν πεποιθημέναι τὸ σημεῖον.)
- (19절)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서로 서로 말했습니다(οἱ οὖν Φαρισαῖοι εἶπαν πρὸς ἑαυτούς)
아무 것도 소용이 없음을 주목해라(θεωρεῖτε ὅτι οὐκ ὠφελεῖτε οὐδέν)
보라 온 세상이 그의 뒤를 향해 떠나가고 있다왜(ἶδε ὁ κόσμος ὀπίσω αὐτοῦ ἀπῆλθεν.)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6 절을 읽으십시오. 요한은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는지 그 이유를 자신이 정확히 깨닫게 된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신 이후에 스가라서의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임을 깨닫게 되었고 당시 예루살렘에 모였던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해 행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여기에 쓰인 헬라이어 문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오우크’(οὐκ)와 ‘알라’(ἄλλ) 두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흔히 ‘A 가 아니라 B 이다(not A but B)’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런 구조로 글을 쓰는 목적은 바로 B 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제자들의 눈앞에서 이 일이 벌어진 그 시점에는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군중들은 왜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쳤으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 일과 어떤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단계에서는 예수님이 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 주셨는지 알지 못했다가 예수님이 영화롭게 된 후에야 비로소 그 에피소드가 의미하는 바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러한 구조로 글을 쓴 또 다른 이유는 제자들이 이 사실을 언제 깨닫게 되었는지 그 시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눈앞에서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나 또 그것이 앞으로 예수님께 일어난 일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영화롭게 된 후에야 비로소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또 그것이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신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잡히시기 직전 아버지 하나님께 아주 긴 기도를 하십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 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²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으로소이다³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⁵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요17:1-5).

이 요한복음 17 장 1~5 절의 구조를 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A: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1 절)
- B: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려함 (2 절)
- B: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3 절)
- A: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4-5 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 즉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줄 때 비로소 실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 아무런 대가 없이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영생은 공짜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영생은 반드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새로운 몸으로의 부활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과정 또한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셔서 그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만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단계로까지 이끄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거치는 동안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그동안 자신들이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그분만 의지하도록 이끄십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죄인이었는데 십자가의 피로 용서를 받았다’라는 식으로 단순히 복음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복음이 의미하는 바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전 과정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과정이지요. 예수님은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따라서 영생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셨다는 말의 참 의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생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은 자라면 그는 반드시 예수님의 그 영화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영화에 동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17 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²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²⁵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삽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삽나이다 ²⁶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요 17:24-26).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게 주신 자”라고 표현하시면서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자신이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을 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 알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영화에 동참하여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알게 되는 것은 인간들의 지혜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방법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

해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의 의미는 물론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일, 택하신 자들이나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 행하신 모든 일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이 영화롭게 된 이후에 깨닫게 된 것은 죽었던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통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과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과 성경의 기록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기까지는 어떤 기적이 눈앞에 펼쳐지든, 어떤 훌륭한 가르침을 듣게 되든 그 진정한 의미를 온전히 알기란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은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을 지식이 아닌 생명으로 받아들여 알고 계신가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목적자 그리고 중인(월요일)

오늘의 본문 (요 12:12~19)

12.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13.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14.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15. 이는 기록된바 시온 딸아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16.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17.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18.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19.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 데 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하니라

원문해석하기

- (12절) 이튿날 (Τῆς ἐπαύριον)
축제에 온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 오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ὁ ὄχλος πολὺς ὁ ἐλθὼν εἰς τὴν ἑορτήν, ἀκούσαντες ὅτι ἔρχεται ὁ Ἰησοῦς εἰς Ἱεροσόλυμα)
-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ἔλαβον τὰ βράβια τῶν φοινίκων)
그를 맞기 위해 나가 외쳤습니다 (καὶ ἐξῆλθον εἰς ὑπάντησιν αὐτῷ καὶ ἐκραύγαζον·)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여!
(ὠσαννά· εὐλογημένος ὁ ἐρχόμενος ἐν ὀνόματι κυρίου, [καὶ] ὁ βασιλεὺς τοῦ Ἰσραήλ.)
- (14절)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보시고는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εὐρῶν δὲ ὁ Ἰησοῦς ὄναριον ἐκάθισεν ἐπ' αὐτ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καθὼς ἐστὶν γεγραμμένον·)
- (15절) 두려워 말라 시온의 딸아 (μὴ φοβοῦ, θυγάτηρ Σιών·)
보라 너의 왕이 오신다 (ἰδοὺ ὁ βασιλεὺς σου ἔρχεται·)
어린 나귀 위에 앉으셔서 (καθήμενος ἐπὶ πῶλον ὄνου·)
- (16절) 처음에 그의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ταῦτα οὐκ ἔγνωσαν αὐτοῦ οἱ μαθηταὶ τὸ πρῶτον·)
그러나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신 후에 (ἀλλ' ὅτε ἐδοξάσθη Ἰησοῦς τότε)
그들이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ἐμνήσθησαν)
이러한 것들이 그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며 (ὅτι ταῦτα ἦν ἐπ' αὐτῷ γεγραμμένα)
그들이 그에게 그렇게 한 것들을 (καὶ ταῦτα ἐποίησαν αὐτῷ·)
- (17절) 그러자 많은 군중들이 증거했습니다 (ἐμαρτύρει οὖν ὁ ὄχλος·)
그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실 때 함께 있던 사람들입니다 (ὁ ὢν μετ' αὐτοῦ ὅτε τὸν Λάζαρον ἐφώνησεν ἐκ τοῦ μνημείου καὶ ἤγειρεν αὐτὸν ἐκ νεκρῶν·)

- (18절) 군중들이 그를 마중나온 것은 그들이 그 이적을 행하신 그것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διὰ τοῦτο [καί] ὑπήντησεν αὐτῷ ὁ ὄχλος, ὅτι ἤκουσαν τοῦτο αὐτὸν πεποιημέναι τὸ σημεῖον.)
- (19절)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서로 서로 말했습니다. (οἱ οὖν Φαρισαῖοι εἶπαν πρὸς ἑαυτούς)
아무 것도 소용이 없음을 주목해라 (θεωρεῖτε ὅτι οὐκ ὠφελεῖτε οὐδέν)
보라 온 세상이 그의 뒤를 향해 떠나가고 있다 (ἶδε ὁ κόσμος ὀπίσω αὐτοῦ ἀπῆλθεν.)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7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자 많은 군중들이 증거했습니다. 증거한 이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실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은 이들이 무엇을 증거했는지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앞뒤 문장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데 아마도 이렇게 증거했을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저분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바로 그 예수님이시다!”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목격한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목격한 그룹은 그 무리들 중 일부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증거는 매우 강력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 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베다니에 사는 한 청년 나사르가 병들어 죽었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냄새가 나는 상황에서 그를 다시 살려내신 분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바로 저 예수라는 사람이다!” 이 증언이 나사르가 다시 살았다는 사실을 이미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던 그곳에 모인 수 많은 군중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로 다가왔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흥분과 놀라움으로 온 몸에 소름이 돋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나사르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증거를 외쳤다고 해서 거기 모인 군중들이 모두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게 되었다고 예단해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눈 앞에서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고 그걸 보았다고 증거했다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며,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은 것은 아니니까요. 이처럼 믿음은 개인적인 체험과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어떤 이가 예언을 했다고 해서, 어떤 이가 방언으로 유창하게 기도를 한다고 해서, 어떤 이가 남들의 병을 고치고 자신의 병도 믿음으로 고쳤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 할지라도 그 체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기 쉬운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체험한 특별한 현상을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단정지어 버리고 또 그것으로 자신의 믿음있음을 입증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자신이 갖고 있던 기존의 세계관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이며, 그 바뀐 세계관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일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하찮은 일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음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삶을 떠나 정말로 가치있는 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동참하려고 애쓰지 않을까요? 그것이 믿는 자들이 보여주는 마땅한 삶의 자세가 아닐런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무가치한 일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의지가 나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진리로 인도된 자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믿는 자

에게 강력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¹¹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¹²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¹³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¹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딤후 2:11-14).

이는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삶을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우리를 지식적 깨달음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변화를 가져다줍니다. 복음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신앙인으로서 당신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늘 뭔가가 부족하다 여기며 그때문에 고민하고 애쓰고 있지는 않나요?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고 자신의 신앙 상태에 대해 간단하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18절을 읽으십시오. 18절은 이유,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절이기에 따로 독립된 구절이 아닙니다. 따라서 17절에 연결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군중들은 나사로가 예수라는 사람에 의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고, 그를 보기 위해 예수님을 마중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사실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군중들을 향해 그 일에 대해 증거한 이유는 바로 “군중들이 그를 마중나온 이유가 그들이 그 이적 즉,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 다. 그리고 목격자들이 그것을 증언함으로써 예수님을 마중나온 사람들 모두가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9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고, 수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고,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이 확실한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서로 서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나눈 대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들은 어떤 것도 소용이 없음을 주목해라! 보라! 온 세상이 그의 뒤를 향해 떠나가고 있다!”

‘주목해라!’로 번역한 헬라어 동사는 서술형과 명령형으로 둘 다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서술형으로 해석한다면, ‘당신들은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보라 온 세상이 그의 뒤를 향해 떠나가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물론 어떻게 해석하든 그 의미는 매우 유사합니다. 다만, 명령형으로 번역할 경우에는 바리새인들이 그동안 애지중지하던 율법주의에 대한 집착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는 강한 명령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서술형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대한 자조적인 탄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볼찌어다”라고 번역하여 사실상 명령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명령형이나 서술형이냐의 문제보다는 ‘왜 바리새인들이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으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말은 이미 모든 주도권이 예수님에게로 넘어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힘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대세를 막을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예수를 죽이는 것 외에는 어떠한 대안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상황은 예수님에게 아주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려 냈으므로 죽은자의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파(대제사장들)를 이미 코너로 몰아 넣었습니다. 이제는 바리새인들 차례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는 그들의 율법적 주장들이 이제는 더 이상 먹혀들지 않을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나귀를 타고 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결국은 십자가를 향해 한걸음 한걸음 다가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유대주의자들을 자극하는 한편 믿는 자들을 위한 자신의 뜻을 차근차근 성취해 가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각자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화요일)

오늘의 본문 (요 12:20~26)

20.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21. 저희가 갈릴리 벧새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뵈옵고자 하나이다 하니
22.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2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26.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원문해석하기

- (20절) [예루살렘에] 올라 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었습니다
(Ἦσαν δὲ Ἕλληνες τινες ἐκ τῶν ἀναβαπόντων)
축제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ἵνα προσκυνήσωσιν ἐν τῇ ἑορτῇ·)
- (21절) 그래서 그들이 갈릴리 벧새다 출신의 빌립에게 다가왔습니다
(οὗτοι οὖν προσῆλθον Φίλιππῳ τῷ ἀπὸ Βηθσαιδᾶ τῆς Γαλιλαίας)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καὶ ἠρώτων αὐτὸν λέγοντες·)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뵈옵기를 원합니다 (κύριε, θέλομεν τὸν Ἰησοῦν ἰδεῖν·)
- (22절) 빌립이 가서 안드레에게 말했습니다 (ἔρχεται ὁ Φίλιππος καὶ λέγει τῷ Ἀνδρέᾳ·)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이 가서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ἔρχεται Ἀνδρέας καὶ Φίλιππος καὶ λέγουσιν τῷ Ἰησοῦ·)
- (23절)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며 대답하셨습니다
(ὁ δὲ Ἰησοῦς ἀποκρίνεται αὐτοῖς λέγων·)
때가 다가왔다 (ἐλήλυθεν ἡ ὥρα)
그 결과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ἵνα δοξασθῇ ὁ υἱὸς τοῦ ἀνθρώπου·)
- (24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만약 밀의 알이 땅으로 떨어져 죽지 않는다면 (ἐὰν μὴ ὁ κόκκος τοῦ σίτου πεσὼν εἰς τὴν γῆν ἄποθάνῃ·)
그것은 홀로 남는다 (αὐτὸς μόνος μένει·)
그러나 만약 죽으면 (ἐὰν δὲ ἄποθάνῃ·)
그것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πολὸν καρπὸν φέρει·)
-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ὁ φιλῶν τὴν ψυχὴν αὐτοῦ ἀπολλύει αὐτήν·)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καὶ ὁ μισῶν τὴν ψυχὴν αὐτοῦ ἐν τῷ κόσμῳ τούτῳ)
 영생하도록 그것을 유지할 것이다 (εἰς ζωὴν αἰώνιον φυλάξει αὐτήν.)
 (26절) 만약 누구든 나를 섬기려 한다면 (ἐάν τις ἐμοί τις διακονῆι),
 그는 나를 따르라 (ἐμοὶ ἀκολουθεῖτω),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함께 있을 것이다
 (καὶ ὅπου εἰμὶ ἐγὼ ἐκεῖ καὶ ὁ διάκονος ὁ ἐμὸς ἔσται.)
 만일 어떤 이가 나를 섬기면 (ἐάν τις ἐμοὶ διακονῆι)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τιμήσει αὐτὸν ὁ πατήρ.)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20 절을 읽으십시오. 유월절 축제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신 직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록은 뜬금없이 삽입된 것처럼 전체 문맥의 흐름을 방해하는 듯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인 요한은 수많은 사건들 중 이 사건을 매우 주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공관복음에는 전혀 이 사건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이들의 등장과 예수님의 반응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여기에 등장하는 헬라인 (Ἕλληνες, 헬레네스)들이 누구인지에 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가에 관하여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헬라 지역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을 거라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이방인의 대명사처럼 불리웠던 헬라인들 중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들로 아예 유대교로 개종했거나 혹은 걸으로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일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후자가 이들의 정체성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라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방인들이 상당수 있었고, 나중에 이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사도 시대의 초대 교인들 중 상당수는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받아들인 유대인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방인 중에는 이미 유대교에 관심이 있거나 유대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디오피아의 내시 (행 8:27)와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 (행 10:1) 등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란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 아니라 당시에 이미 유대교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은 헬라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멀리 아테네나 스파르타 지역과 같은 헬라 지역에서 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갈릴리 호수 건너편 지역인 데가볼리 등이 이들의 출신 지역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다음 절(21 절)에서 빌립을 소개할 때 굳이 갈릴리 뻘새다 출신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추론이 가능합니다.

21-22 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빌립을 찾았고,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으며,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님께 이 일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한다는 말을 전하는 과정을 지나칠 정도로 상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예수님을 직

접 찾지 않고 빌립과 안드레를 거쳐 예수님께 자신들의 의사를 전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빌립과 안드레가 헬라인들이 사용하는 이름이어서 그들과 꽤 친숙했을 거라고 추측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유대인 랍비인 예수님이 당시 이방인인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몰랐기 때문에 제자들을 통해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물론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땅에 오셨으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범주는 유대인 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셨다는 점에서 이들의 행동을 당시 유대인들의 보편적 성향에 비추어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일에 관해서는 몇 가지 개연성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전도’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몇몇 제자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중 유독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빌립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한 사람이고, 오병이어의 사건 당시 예수님이 직접 빌립을 지목해서 질문하시기도 했으며, 14 장에서는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 달라고 했던 사람도 빌립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빌립의 역할은 누군가를 예수님께 소개하거나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안드레는 어떠한가요? 안드레는 그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하였으며,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보리떡 다섯과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던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헬라인을 예수님께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들 두 사도의 캐릭터를 ‘전도’ 또는 ‘소개하는자’로 묘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헬라인을 예수님께 소개하는데 빌립과 안드레가 동시에 등장하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전도’는 필수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의 구속 사역을 완수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직접적 계시 보다는 간접적 전도라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 장 17 절~24 절을 보겠습니다.

“¹⁷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¹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¹⁹ 기록된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²⁰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²¹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²²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²³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²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전 1:17-24).

어찌 보면 전도는 매우 미련한 방법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단번에 될 일을 사람이 사람에게 구차하게 말로 설명을 해야 하니 말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사람을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없
 매였던 것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전하기만하면 됩니다. 그것이 전도자의 역할입니다. 택한
 백성을 인도하여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외칠 뿐
 이지요. 여기서 전도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성경 말씀 한 곳을 더 찾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
 장 13 절~15 절을 보겠습니다.

“¹³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¹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
 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¹⁵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
 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롬
 10:13-15).

당신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렇다면 당신도 빌립과 안드레가 했던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 주변에는 구원의 의미를 모르는 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밖의 이방인
 들도 많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복음의 진정한 의미는 모른 채 그저 하나의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분들
 도 많이 있습니다. 당신 곁에 있는 바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이곳에 파견
 한 것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당신은 입을 벌려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남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때가 되었다! (수요일)

오늘의 본문 (요 12:20~26)

20.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21. 저희가 갈릴리 벧새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뵈옵고자 하나이다 하니
22.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2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26.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원문해석하기

- (20절) [예루살렘에] 올라 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었습니다
(Ἦσαν δὲ Ἕλληνες τινες ἐκ τῶν ἀναβαπόντων)
축제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ἵνα προσκυνήσωσιν ἐν τῇ ἑορτῇ·)
- (21절) 그래서 그들이 갈릴리 벧새다 출신의 빌립에게 다가왔습니다
(οὗτοι οὖν προσῆλθον Φίλιππῳ τῷ ἀπὸ Βηθσαιδᾶ τῆς Γαλιλαίας)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καὶ ἠρώτων αὐτὸν λέγοντες·)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뵈옵기를 원합니다 (κύριε, θέλομεν τὸν Ἰησοῦν ἰδεῖν·)
- (22절) 빌립이 가서 안드레에게 말했습니다 (ἔρχεται ὁ Φίλιππος καὶ λέγει τῷ Ἀνδρέᾳ·)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이 가서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ἔρχεται Ἀνδρέας καὶ Φίλιππος καὶ λέγουσιν τῷ Ἰησοῦ·)
- (23절)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며 대답하셨습니다
(ὁ δὲ Ἰησοῦς ἀποκρίνεται αὐτοῖς λέγων·)
때가 다가왔다 (ἐλήλυθεν ἡ ὥρα)
그 결과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ἵνα δοξασθῇ ὁ υἱὸς τοῦ ἀνθρώπου·)
- (24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만약 밀의 알이 땅으로 떨어져 죽지 않는다면 (ἐὰν μὴ ὁ κόκκος τοῦ σίτου πεσὼν εἰς τὴν γῆν
ἀποθάνῃ·)
그것은 홀로 남는다 (αὐτὸς μόνος μένει·)
그러나 만약 죽으면 (ἐὰν δὲ ἀποθάνῃ·)
그것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πολὸν καρπὸν φέρει·)
-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ὁ φιλῶν τὴν ψυχὴν αὐτοῦ ἀπολλύει αὐτήν·)

- 그리고 이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καὶ ὁ μισῶν τὴν ψυχὴν αὐτοῦ ἐν τῷ κόσμῳ τούτῳ)
 영생하도록 그것을 유지할 것이다 (εἰς ζωὴν αἰώνιον φυλάξει αὐτήν.)
 (26절) 만약 누구든 나를 섬기려 한다면 (ἐάν ἐμοί τις διακονῇ),
 그는 나를 따르라 (ἐμοὶ ἀκολουθείτω),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함께 있을 것이다
 (καὶ ὅπου εἰμὶ ἐγὼ ἐκεῖ καὶ ὁ διάκονος ὁ ἐμὸς ἔσται.)
 만일 어떤 이가 나를 섬기면 (ἐάν τις ἐμοὶ διακονῇ)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τιμήσει αὐτὸν ὁ πατήρ.)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2-26 절을 읽으십시오.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찾아가 몇몇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 뵈기를 원한다고 전하자 예수님은 뜻밖에도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은 역접 접속사 ‘데’ (δε)를 사용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대했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전혀 엉뚱한 말로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한다는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때가 왔다. 그 결과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만약 밀의 알이 땅으로 떨어져 죽지 않는다면 그것은 홀로 남는다. 그러나 만약 죽으면 그것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그것을 유지할 것이다. 만약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 한다면 그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함께 있을 것이다. 만일 어떤 이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12:23~26).

23 절에서 예수님은 “그 때가 왔다”(The hour has come!)라는 선언으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렇다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과 ‘그 때’(ἡ ὥρα, 헤 호라)라는 단어가 밀접한 관련이 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헬라인들이 자신을 만나고자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만 선포하셨다면 요한이 이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헬라인들을 만나 그들과 대화하는 대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신 것은 헬라인들이 자신을 찾은 그일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암시하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때”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시점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헬라인의 등장을 부각시킨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사실상 코너로 몰아가셨습니다. 그들은 점점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줄어들었고 급기야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 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루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꾸준히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손을 통해 구속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을 통해 구원이 이방으로 넘어가는 중대한 시점을 맞게 된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찾아온 이 사건은 ‘그 때’와 절묘하게 맞아들어갑니다. 즉, 유대인들의 강박한 마음을 통해 예수님이 완전히 거절당하고 죽어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역사적

사건을 이 사건이 암시하고 있는 셈이지요. D.A Carson은 이 사건을 “로마서 9장~11장의 위대한 주제와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의 일부를 살펴 보겠습니다.

“³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³¹ 의의 법을 좇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³²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³³ 기록된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롬 9:30-33).

“19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써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써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20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21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롬 10:19-21).

“⁸ 기록된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⁹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울무와 덧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¹⁰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굶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¹¹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¹²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오 ¹³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¹⁴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¹⁵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오”(롬 11:8-15).

로마서의 논증에 의하면, 예수님은 택하신 백성들, 즉 유대인들에 의해 죽임 당하여 무덤에 들어가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게 됩니다. 이것은 필연이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예수님의 수난과 영광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간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완악함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방법으로 구속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이지요. 사실 유대인들의 완악함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려는 생각으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요? 그들은 율법적으로 완전한 삶을 살려고 애썼으며, 말끝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외쳤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은 매주 두번 금식을 하고, 십일조는 거른 적이 없습니다. 창녀,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는 철저히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경건한 삶이, 그들이 목숨걸고 지키려던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도리어 하나님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귀를 막으셨기 때문입니다(요 12:37-40 참조).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어찌면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건지를 제대로 모르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모두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은 모른 채 인간들 생각으로 ‘이 정도면 되었다’고 스

스로 판단하여 자신들의 신앙이 옳다고 믿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갈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³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롬 10:2-3).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세운 것은 자기 자랑을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자신들의 의를 주장한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 한 개인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분의 영광은 곧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매달린 모든 성도들을 위한 영광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 영광은 자신이 택한 백성의 배반을 통해 시작되고, 그런 그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얽치없는 믿음을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언제 ‘그 때’가 왔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당신의 것이 된 것은 언제인가요? 자신의 하나님 자녀됨을 생각하며 간단하게 주님이 주신 그 영광에 대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이 어떨런지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 (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한 입의 밭입 (목요일)

오늘의 본문 (요 12:20~26)

20.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21. 저희가 갈릴리 벧새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뵈옵고자 하나이다 하니
22.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2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26.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원문해석하기

- (20절) [예루살렘에] 올라 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었습니다
(Ἦσαν δὲ Ἕλληνές τινες ἐκ τῶν ἀναβαπόντων)
축제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ἵνα προσκυνήσωσιν ἐν τῇ ἑορτῇ·)
- (21절) 그래서 그들이 갈릴리 벧새다 출신의 빌립에게 다가왔습니다
(οὗτοι οὖν προσῆλθον Φίλιππῳ τῷ ἀπὸ Βηθσαιδᾶ τῆς Γαλιλαίας)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καὶ ἠρώτων αὐτὸν λέγοντες·)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뵈옵기를 원합니다 (κύριε, θέλομεν τὸν Ἰησοῦν ἰδεῖν·)
- (22절) 빌립이 가서 안드레에게 말했습니다 (ἔρχεται ὁ Φίλιππος καὶ λέγει τῷ Ἀνδρέᾳ·)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이 가서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ἔρχεται Ἀνδρέας καὶ Φίλιππος καὶ λέγουσιν τῷ Ἰησοῦ·)
- (23절)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며 대답하셨습니다
(ὁ δὲ Ἰησοῦς ἀποκρίνεται αὐτοῖς λέγων·)
때가 다가왔다 (ἐλήλυθεν ἡ ὥρα)
그 결과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ἵνα δοξασθῇ ὁ υἱὸς τοῦ ἀνθρώπου·)
- (24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만약 밀의 알이 땅으로 떨어져 죽지 않는다면 (ἐὰν μὴ ὁ κόκκος τοῦ σίτου πεσὼν εἰς τὴν γῆν
ἀποθάνῃ·)
그것은 홀로 남는다 (αὐτὸς μόνος μένει·)
그러나 만약 죽으면 (ἐὰν δὲ ἀποθάνῃ·)
그것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πολὸν καρπὸν φέρει·)
-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ὁ φιλῶν τὴν ψυχὴν αὐτοῦ ἀπολλύει αὐτήν·)

그리고 이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καὶ ὁ μισῶν τὴν ψυχὴν αὐτοῦ ἐν τῷ κόσμῳ τούτῳ)
 영생하도록 그것을 유지할 것이다 (εἰς ζωὴν αἰώνιον φυλάξει αὐτήν.)
 (26절) 만약 누구든 나를 섬기려 한다면 (ἐάν ἐμοί τις διακονῇ)
 그는 나를 따르라 (ἐμοὶ ἀκολουθήτω),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함께 있을 것이다
 (καὶ ὅπου εἰμὶ ἐγὼ ἐκεῖ καὶ ὁ διάκονος ὁ ἐμὸς ἔσται.)
 만일 어떤 이가 나를 섬기면 (ἐάν τις ἐμοὶ διακονῇ)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τιμήσει αὐτὸν ὁ πατήρ.)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23-26 절을 읽으십시오.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는 두 제자들의 말을 전해들은 예수님은 모호한 말씀으로 답을 대신하십니다. 24 절에서 예수님은 “만약 밀의 알이 땅으로 떨어져 죽지 않는다면 그것은 홀로 남는다. 그러나 만약 죽으면, 그것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은 24 절 한 절만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수 많은 성도들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라고 해석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과정이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선 예수님이 23 절에서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신 바로 뒤 이어 이 말씀을 하셨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인자이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과 ‘땅으로 떨어진 밀의 알이 죽는 것’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땅으로 떨어진 밀로 본다면 영광을 받는 것은 그 밀이 죽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이 세상에서 화려한 삶을 살거나 또는 이 세상 사람들과 힘겨루기를 하여 승리를 얻어 화려한 월계관을 머리에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스런 가시관을 쓰고 죽음에 자신을 내어줄 때 비로소 성취되는 것임을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을 구하지 않으며 (8:50)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이미 밝히신 바 있습니다 (8:54).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먼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내어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결국에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여기서 “떨어지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능동형으로 쓰였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πεσόν, 페손). 이는 예수님 스스로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하셨고 그 결정에 따라 이 땅에 스스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죽음을 선택하지 않으실 수도 있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그런 고난의 길을 선택하셔서 그 길로 묵묵히 걸어가신 이유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사실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그들의 요청에 대한 대답으로 이 말씀을 이어가고 계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과 안드레는 그 헬라인들에게 어떤 말을 전해야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통해 헬라인으로 대표되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예수님을 뵈고자 했던 몇몇 헬

라인들, 더 나아가 오늘날 예수님을 뵈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인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는 그분의 죽음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분의 부활을 자기 자신을 대신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해 로마서에서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 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메신저인 두사도, 빌립과 안드레에게 바로 이 복음의 의미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설명을 통해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 장 42 절~53 절을 보겠습니다.

“⁴²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⁴³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⁴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는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⁴⁵ 기록된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⁴⁶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⁴⁷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⁴⁸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⁴⁹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⁵⁰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⁵¹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⁵²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⁵³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고전 15:42-53).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통해 새로운 몸을 갖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입증하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영광스런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고 수많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믿는 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열매에 참여케 하기 위해 예수님은 스스로 이 땅으로 떨어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을 통해 수많은 열매들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첫 열매라 함은 앞으로 계속 열리게 될 수많은 열매들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요. 당신은 그 열매의 대열에 동참하였나요? 열매에 동참하게 된 과정을 간단하게 적어 보시고 열매를 맺기 위해 땅으로 떨어져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 깊은 묵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런지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 (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생명이 대한 사랑과 미움 (금요일)

오늘의 본문 (요 12:20~26)

20.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21. 저희가 갈릴리 벧새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뵈옵고자 하나이다 하니
22.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2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26.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원문해석하기

- (20절) [예루살렘에] 올라 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명이 있었습니다
(Ἦσαν δὲ Ἕλληνες τινες ἐκ τῶν ἀναβαπόντων)
축제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ἵνα προσκυνήσωσιν ἐν τῇ ἑορτῇ·)
- (21절) 그래서 그들이 갈릴리 벧새다 출신의 빌립에게 다가왔습니다
(οὗτοι οὖν προσῆλθον Φίλιππῳ τῷ ἀπὸ Βηθσαιδᾶ τῆς Γαλιλαίας)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καὶ ἠρώτων αὐτὸν λέγοντες·)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뵈옵기를 원합니다 (κύριε, θέλομεν τὸν Ἰησοῦν ἰδεῖν·)
- (22절) 빌립이 가서 안드레에게 말했습니다 (ἔρχεται ὁ Φίλιππος καὶ λέγει τῷ Ἀνδρέᾳ·)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이 가서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ἔρχεται Ἀνδρέας καὶ Φίλιππος καὶ λέγουσιν τῷ Ἰησοῦ·)
- (23절)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며 대답하셨습니다
(ὁ δὲ Ἰησοῦς ἀποκρίνεται αὐτοῖς λέγων·)
때가 다가왔다 (ἐλήλυθεν ἡ ὥρα)
그 결과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ἵνα δοξασθῇ ὁ υἱὸς τοῦ ἀνθρώπου·)
- (24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만약 밀의 알이 땅으로 떨어져 죽지 않는다면 (ἐὰν μὴ ὁ κόκκος τοῦ σίτου πεσὼν εἰς τὴν γῆν ἀποθάνῃ·)
그것은 홀로 남는다 (αὐτὸς μόνος μένει·)
그러나 만약 죽으면 (ἐὰν δὲ ἀποθάνῃ·)
그것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πολὸν καρπὸν φέρει·)
-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ὁ φιλῶν τὴν ψυχὴν αὐτοῦ ἀπολλύει αὐτήν·)

그리고 이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καὶ ὁ μισῶν τὴν ψυχὴν αὐτοῦ ἐν τῷ κόσμῳ τούτῳ)
 영생하도록 그것을 유지할 것이다 (εἰς ζωὴν αἰώνιον φυλάξει αὐτήν.)
 (26절) 만약 누구든 나를 섬기려 한다면 (ἐάν ἐμοί τις διακονῇ),
 그는 나를 따르라 (ἐμοὶ ἀκολουθεῖτω),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함께 있을 것이다
 (καὶ ὅπου εἰμὶ ἐγὼ ἐκεῖ καὶ ὁ διάκονος ὁ ἐμὸς ἔσται.)
 만일 어떤 이가 나를 섬기면 (ἐάν τις ἐμοὶ διακονῇ)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τιμήσει αὐτὸν ὁ πατήρ.)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25 절을 읽으십시오.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그것을 유지할 것이다.”

예수님은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연합되어 열매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⁴⁹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²⁰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²¹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벧전 2:19-21).

이 말씀은 단순히 믿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외부의 핍박에도 참고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은 단순히 외부의 핍박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데 따르는 외부의 핍박이 없을지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란 어떤 의미일까요?

신학자 D.A. Carson 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애지중지하는 것은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 다른 의미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명예와 가치를 챙기는 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시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끼친다거나, 자신의 명예를 해치는 일을 했을 때에는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며 때에 따라서는 보복을 가하기까지 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 부등 세상적으로 가치있다 여겨지는 것이 조금이라도 훼손되면 너무도 힘들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물론,

누구나 이 땅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고난으로 이끄시기도 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떠하나요? 당신이 이 세상에서 끝까지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왜 그런지를 묵상해보시기 바랍니다.

26 절을 읽으십시오. 26 절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A: ἐάν ἐμοί τις διακονῇ(만약 누구든 나를 섬기려 한다면)
- B: ἐμοὶ ἀκολουθεῖτω,(그는 나를 따르라)
- C: καὶ ὅπου εἰμι ἐγὼ ἐκεῖ(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
- C: καὶ ὁ διάκονος ὁ ἐμὸς ἔσται.(나를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다)
- A: ἐάν τις ἐμοὶ διακονῇ(만일 어떤 이가 나를 섬기면)
- B: τιμήσει αὐτὸν ὁ πατήρ.(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문장 구성을 보면 두 번의 가정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가정과 두 번째 가정은 어순만 다를 뿐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만, 자연스럽게 문장을 표현하기 위해 첫 번째 가정은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 한다면”으로 번역하고 두 번째 가정은 “어떤 이가 나를 섬기면”으로 번역했을 뿐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문장은 “그는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과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두 말씀에 정확하게 동일한 가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만일 예수님을 섬긴다면”(또는 섬기려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이는 다른 어떤 선택권도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매우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²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²⁵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²⁶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마 16:24-26).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자기 부인이며,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이 자기 목숨과 바꿀 것이 단 한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어떠십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자신의 모든 것과 바꿀만한 것이라 생각하나요?

26절에서 사실상 결론 부분은 “내가 있는 그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다”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동행은 단순히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없이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그 길로 가야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라면 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분과 함께 걷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주님과 함께 그의 길을 걷고 계신가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 (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이 때에 오신 목적 (토요일)

오늘의 본문 (요 12:27~36)

27.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28.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29.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리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30.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31.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32.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33.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34.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35.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36.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원문해석하기

- (27절) 지금 나의 영혼이 심란하구나 (Nūn ἡ ψυχὴ μου τετάρακται.)
내가 무엇을 말하겠는가? (καὶ τί εἶπω;)
아버지여! 나를 이 시간으로부터 구원하소서 [라고 말할까]? (πάτερ, σῶσόν με ἐκ τῆς ὥρας ταύτης.)
그러나 이 때문에 내가 이 시간으로 들어왔느니라 (ἀλλὰ διὰ τοῦτο ἦλθον εἰς τὴν ὥραν ταύτην.)
- (28절)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πάτερ, δόξασον σου τὸ ὄνομα.)
그러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왔습니다 (ἦλθεν οὖν φωνὴ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내가 영화롭게 하였고, 다시 영화롭게 할 것이다 (καὶ ἐδόξασα καὶ πάλιν δοξάσω.)
- (29절) 그래서 서 있다가 들었던 군중들은 천둥소리가 났다고 말하였습니다 (ὁ οὖν ὄχλος ὁ ἐστὼς καὶ ἀκούσας ἔλεγεν βροντὴν γεγονέναι.)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ἄλλοι ἔλεγον.)
천사가 그에게 말을 했다 (ἄγγελος αὐτῷ λελάληκεν.)
- (30절) 예수님이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καὶ εἶπεν.)
그 소리가 난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들 때문이다 (οὐ δι' ἐμέ ἡ φωνὴ αὕτη γέγονεν ἀλλὰ δι' ὑμῶς.)
- (31절) 지금 이것은 이 세상의 심판이다 (νῦν κρίσις ἐστὶν τοῦ κόσμου τούτου.)
지금 이 세상의 권세자가 쫓겨날 것이다 (νῦν ὁ ἄρχων τοῦ κόσμου τούτου ἐκβληθήσεται ἔξω.)
- (32절) 그리고 만약 내가 이 땅으로부터 들리워진다면 (καὶ γὰρ ἐὰν ὑψωθῶ ἐκ τῆς γῆς.)

- 내가 모든 사람들을 나에게로 이끌 것이다 (πάντας ἐλκύσω πρὸς ἐμαυτόν.)
- (33절) 그러나 그가 이것을 말씀하셨다 (τοῦτο δὲ ἔλεγεν)
그가 죽을 죽음이 어떠할지를 강조하고자 (σημαίνων ποίῳ θανάτῳ ἤμελλον ἀποθνήσκειν.)
- (34절) 그러자 군중들이 대답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 οὖν αὐτῷ ὁ ὄχλος·)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들었다 (ἡμεῖς ἠκούσαμεν ἐκ τοῦ νόμου)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ὅτι ὁ χριστὸς μένει εἰς τὸν αἰῶνα.)
당신은 어떻게 인자가 들리워야 하다고 말하는가?
(καὶ πῶς λέγεις σὺ ὅτι δεῖ ὑποθῆναι τὸν υἱὸν τοῦ ἀνθρώπου·)
이 인자는 누구인가? (τίς ἐστὶν οὗτος ὁ υἱὸς τοῦ ἀνθρώπου·)
- (35절)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οὖν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아직 너희에게 아주 잠시 동안 빛이 있다 (ἔτι μικρὸν χρόνον τὸ φῶς ἐν ὑμῖν ἐστίν.)
당신들이 그 빛을 가지고 있는 동안 행하라 (περιπατεῖτε ὡς τὸ φῶς ἔχετε.)
어두움이 당신들을 정복하지 않도록 (ἵνα μὴ σκοτία ὑμᾶς καταλάβῃ·)
어두움에 다시는 자는 그가 어디로 떠나가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καὶ ὁ περιπατῶν ἐν τῇ σκοτίᾳ οὐκ οἶδεν ποῦ ὑπάγει.)
- (36절) 당신들이 빛을 지니고 있을 때 (ὡς τὸ φῶς ἔχετε.)
당신들은 빛으로 행하라 (πιστεύετε εἰς τὸ φῶς.)
그 결과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ἵνα υἱοὶ φωτὸς γένησθε.)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떠나 그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ταῦτα ἐλάλησεν Ἰησοῦς καὶ ἀπελθὼν ἐκρύβη ἀπ' αὐτῶν.)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27 절을 읽으십시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앞에 닥친 그 일, 영광을 위한 그 일이 세상에서 높아져 남들의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진 채 죽어야 하는 수치스럽고 괴로운 일이기 “지금 나의 마음이 심란하구나!”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 27 절은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라고 해석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의문문이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이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 나를 이 시간으로부터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할까?” 입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이 상황으로부터, 이 시간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말을 할 수 없다. 나는 나를 이 시간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말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난관이 있든, 어떠한 수모를 겪든 반드시 그것을 감당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 26:39).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에서 앞으로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그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이 힘든 길을 피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길을 가야만 함을 시인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가시겠다는 각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마음이 몹시 괴롭다고 하시며 제자들을 향해 이런 질문을 하신 것도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으로부터”(ἐκ τῆς ὥρας ταύτης, 에크 테스 호라스 타우테스) 그리고 “이 시간으로”(εἰς τὴν ὥραν ταύτην, 에이스 텐 호란 타우텐)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여기서 ‘이 시간’이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현을 빌리자면 밀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시간안으로 이미 진입하셔서 그 시간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간으로부터 자신을 빼내어 달라고 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때,’ ‘그 시간’은 도대체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시간은 길게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보여 준 때로부터 새 창조, 즉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인류구속의 현장인 이 세상이 존재하는 모든 시간이 바로 ‘그 때’ 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면 그 시간이 너무 광범위하므로 그 범위를 좁혀서 불필요가 있습니다. 다시말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로부터 인류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때까지를 ‘그 때’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좁게는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의 시작을 이런 선포로 시작하셨으니까요.

“¹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¹⁵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막 1:14-15).

마지막으로 아주 좁게는 ‘그 때’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고난이었고, 구속을 위한 삶이 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에서 ‘그 때’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약이 예수님과 그를 통한 인류 구속 사역을 미리 증거하고 예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범위에 들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보면 예수님은 이제 ‘호 코스모스’(이 세상)에서 인류의 구속을 위한 정점의 시간에 다다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이 심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앞에 놓인 그 사명을 담대히 감당하실 거라는 각오를 제자들에게 내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자신 앞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거기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외면해 버리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미래를 소망하면서 현실을 견디어 내려고 애쓰기도 하지요. 또 어떤 이들은 아예 그런 현실 속에 매몰되어 고통스럽게 투쟁하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안 되면 극단적인 경우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간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길이었습니다.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에게든 ‘그 시간’은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그 시간’이 주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남들과 비교해서 억울할 정도로

불공평하다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또 나야!’라는 탄식이 흘러 나올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 상황과 그 시간 가운데로 나를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인정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그 시간’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려운 상황, 견딜 수 없는 모멸감, 수치스러운 일이 내 앞을 가로 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위해 내가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과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의 편지 한 구절을 인용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⁵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⁶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⁷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함이라⁸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⁹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벧전 1:3-9).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